

‘피의자 박근혜’ 이번주 포토라인 설까

檢 “소환 날짜 오늘 통보”

조기 대선정국에 수사 속도

비협조엔 체포영장도 검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차음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예고했다.

특수반 관계자는 1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해서 내일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자료 일체를 넘겨받은 지 11일 만에 소환을 공식화한 셈이다. 사실상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음을 공개 선언한 것으로도 읽힌다.

소환 시점은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것은 불과 이틀 전이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로부터 뇌물 수수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조기 소환’ 입장을 굳힌 것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목전에 두고 좌고우면하거나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검찰 조사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부터 각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져 유세 레이스가 본격화하도 이달을 넘기면 오히려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무산 일지

| | | |
|--------|---------|--|
| 2016년 | 11월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비서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및 특검 수사 수용 입장 공식 표명 |
| 11월 | 11월 11일 | 11월 셋째 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 |
| 11월20일 | 11월20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 검찰 조사 거부 입장 표명 |
| 11월23일 | 11월23일 | 검찰 특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통해 대면조사 요청서 전달 |
| 11월28일 | 11월28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 검찰에 대면조사 요구 틀을 서면 전달 |
| 11월29일 | 11월29일 | 3차 대국민담화 발표(검찰 조사 관련 언급 하지 않음) |
| 12월9일 | 12월9일 | 국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 2017년 | 1월1일 | 박영수 특검, 2일 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제안 |
| 2월3일 | 2월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개시 청와대에 통보, 청와대 불허로 철수 |
| 2월8일 | 2월8일 | 박 전 대통령 특검, 임정 및 정소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 거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특검 공식 발표 |
| 3월10일 | 3월10일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간 선고 인용, 박 전 대통령 파면 |
| 3월12일 | 3월12일 |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로 복귀 |
| 3월14일 | 3월14일 | 검찰 특수,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 내일 통보 발표 (피의자 신분 조사, 소환 시점 3월 셋째 주 후반 ~ 넷째 주 예상) |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굳이 수사 시점을 뒤로 미뤄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는 수사팀 내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SK·롯데·CJ 등 대기업들 뇌물 수수도 동시다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기 특수본의 주요 현안인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수사도 비교적 빠른 ‘템포’로 끌고간다는 게 수사팀 구상이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의 경우 대선 일정과 크게 관련이 없고 추가 수사 필요성이 커 상황에 따라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도 조만간 소환 통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움직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우선 변호인단 보강을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현황

노태우 전 대통령
• 시기: 1996년 11월
• 조사 장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 형량: 수선외 혐의 미지급 조성 의혹

전두환 전 대통령
• 1995년 12월
• 검찰 소환 불응, 안원교도소에서 검찰 출정조사
• 12·12 군사부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
• 2009년 4월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 박연차 게이트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 2017년 3월 넷째 주 초(예상)
• 서울 중랑구 대검찰청 청사
•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권력남용 등 다수 혐의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13일 18대 의원을 지냈고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손병규 변호사와 면담하는 등 인력 확충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손 변호사를 포함해 기존에 있던 검찰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일부 인원과 함께 검찰 출신의 명망가를 영입해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선일 지정 미루고 대선 출마 고민하나

탄핵 심판 이후 장고 들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일 지정을 미루면서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은 없었다”며 “대통령 선거일 지정은 법정기한인 3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이날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른다고는 목소리가 많다. 행정자치부가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쳐 안건을 상정하기만 하면 선거일이 지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역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 대선일이 사실상 5월 9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일 지정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전날 밤늦게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건 상정을 미룬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진 게 아니

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지정하는 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적인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불출마를 결정했다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월 10일 탄핵심판 이후에도 사흘 동안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아 장고(長考)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황 권한대행의 출마에 비관적인 목소리가 많다. 행정자치부가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쳐 안건을 상정하지만 하면 선거일이 지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황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지연되거나 혹은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황 권한대행이 반대로 국정 불확실성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2인자인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황 대행, 靑 실장 등 9명 사표 모두 반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열 경호실장과 수석 비서관 9명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표 반려 배경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사표 반려로 청와대는 ‘3실장, 9수석’(정책조정수석 공석)이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황 권한대행을 보좌할 전망이다.

앞서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강제수사·靑 압수수색하라”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오늘 기자회견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압박을 자제해왔던 운동본부 측은 이날 검찰을 향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 체포 및 구속 수사, 청와대와 사저 압수수색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운동본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청와대를 2일간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당시에는 물론 청와대 퇴거 후 삼성동 집 앞에서 측근을 통해 ‘사과 없는 불복’을 선언한 이후에도 한동안 비판은 물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황성효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사법저리를 피하고 어떻게든 정치생명을 연장해보려는 꼼수 행태를 보며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잠시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뜻을 모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근혜 자택 방문하는 미용실 원장

미용실 원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울 강남 삼성동 사저 앞에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택시에서 내려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갔다.

14일 오전 7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의 머리 등 미용을 담당해온 정승주 T미용실 원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울 강남 삼성동 사저 앞에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택시에서 내려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갔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 (보1억5천/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 (보5천/월9백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임대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보1억6천/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래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연염기, 아쿠뎀,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래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래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평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들이 이용 바랍니다.